

# 한국 군사지리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황성한\* · 김만규\*\*

## A Study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Military Geography

Hwang, Sung Han\* · Kim, Man Kyu\*\*

**요약** : 군사지리학은 지리적인 요소를 군사적 행위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다. 지형 등을 포함하는 군사지리학 요소는 군대의 용병술과 군사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활용된 용병술은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어온 용병술 형성과 군사지리학 요소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침체된 가운데 학문적 담론은 미흡한 상태이다. 반면에 영미권의 군사지리학 연구에서는 군대의 평화유지·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군사지리학 연구를 통한 연구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영미권의 연구경향과 한국의 기존 연구에 대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군사지리학의 연구 및 교육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군사지리학 연구의 활성화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개선,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지리학회 내의 군사지리학 관련 소분과 설치 등이다. 한국의 군사지리학이 전쟁기여 면의 용병술 분야와 함께 군대의 평화유지·인도주의 활동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군사지리학, 용병술, 군사이론, 연구활성화, 발전방향

**Abstract** : Military Geography is a literature studying the application of geographical elements to military behaviour. The elements of military geography including topography greatly influences on building military art and theory. The military art applied on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iod of ancient three countries(Koguryeo, Shilla, Paekche) has been developed maintaining consistent stream reflecting topographic features. Despit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of military art and military geography's elements, the study for Korean military geography has been depressed and the discourses of literature has been insufficient. But, in the western study of military geography, the study vitalization efforts studying military peace keeping and humanitarian activity are ongoing. Based on the current trend of western study and the analysis of existing Korean study, this treatise proposes three plans to improve the study and education of Korean military geography. The key contents of plans are comprised with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curriculum, the construction of council between relevant organism, and the installation of subdivision in relevant geographical society. The possibility shaping up the identity of Korean military geography as a common literature can be increased by enhancing the study toward peace and humanitarian and specifying the method for development as noted on this study.

**Key Words** : Military Geography, Military art, Military Theory, Vitalization of study, Development direction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원익환 등(1980)에 의하면 군사지리학은 지리적인 요소를 군사적 행위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에는 군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군부대와 제반 사물의 위치, 특성 및 분포가 가지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명제는 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지식)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손자병법(김광수 편역, 1999)』의 지형(地形)편에서는 “지천지지(知天知地) 승내가전(勝乃可全)”이라고 하였다. 손자가 말하는 핵심은 정보가 있으면 패하지 않으나 지형을 알게 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리적 요소인 지형을 알 수 있어야 모든 전투에서

\* 공주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jmy6397@naver.com)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aquasia@kongju.ac.kr)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현대적 관점의 군사지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군사지리학은 군사이론의 확립에 있어서 군사력 설계 및 운용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활동은 대부분 군사교육 담당 및 관련 기관 주도로 수행되어 왔으며 주요 연구 활동 시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국한되어 있다. 군사교육기관의 군사지리학 관련 교육은 대부분 작전임무 수행능력 배양에 필요한 지형 해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지리적 요소인 국토의 크기와 자원 현황 면에서 주변국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었으나, 지형 및 기상을 활용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역사를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활용의 내면에 군사지리학요소의 활용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수행되어 온 군사지리학 연구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쉽게도 한국 군사지리학의 연구수준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 1990년대 이전의 한정된 기간 동안에 군사적 업무수행능력 배양 목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내용도 대부분 영미권의 전통적 연구관점인 “전쟁기여 면에서의 군사지리학” 연구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에 미국 등 영미권의 군사지리학 연구에서는 Palka(1995)와 Woodward(2005)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쟁에 기여하는 관점의 연구가 초래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영역 확장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사이론의 발전과 국방력 확립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이론으로서 한국 군사지리학의 연구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군사학과 군사지리학과의 관계 고찰 및 군사지리학 연구와 교육의 동향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용한 국내외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 군사지리학의 연구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를 식별하였다. 또한 관련 군사지리학 연구 및 군사학과 용병술, 그리고 군 관련 교육기관에서 발간한 군사지리학 교육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형과 역사적 용병술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쟁사 관련 문헌과 주요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연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는 군사지리학에 대한 인식, 군사학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학문적 고찰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군사지리학의 초기 인식은 주로 육군대학 등 군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최초 자료인 육군대학(1965)의 『군사지리(교안)』에는 군사지리학의 개념 및 정의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군사작전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형, 기후 및 기상, 인구, 경제 등 지리적 요소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국방대학원(1978a)의 교육용 교재인 『군사지리』는 지형분석에 필요한 단편적 지식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방대학원(1988)에서 Peltier and pearcy(1966)의 『Military Geography』를 번역한 『군사지리』는 이후 한국의 군사지리 연구가 전쟁기여 면에 중점을 두고 인식하는 학술적 근거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육군대학(1989)에서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분석을 추가한 『군사지리』를 장교 교육용으로 발간했다. 현대우(1991)는 군사지리학에 대해 지리적 요소를 군사적 행위에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역사적 전례에 대한 고찰을 실시했다.

군사지리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 형성을 바탕으로 수행된 군사학과 군사지리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육군교육사령부(1987)에서 발간한 『군사이론연구』에서는 군사이론체계를 ‘용병체계’와 ‘관리지원체계’로 나누었으며, 군사지리를 군사이론을 실제 적용할 대상으로서 용병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종학(1997)은 전쟁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군사학의 7대 교육 분야의 하나로 군사지리학을 포함하였다. 장용선 등(1999)은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및 학위수여 방안 연구를 통해 군사지리학을 전쟁과 군사력 연관 연구 분야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군사과학기술과

동일한 수준에서 군사지리학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정성(2004)은 군사학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통하여 군사지리학을 용병분야 과목인 군사정보학의 세부 과목으로 포함하였다. 최종철 등(2006)은 미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학체계에서 군사지리가 군사학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군사지리학에 대한 학문적 고찰은 군교육기관의 연구활동이 주류를 이루며 학계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김형남(1991)은 군사지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한반도의 전쟁억제 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군의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두일 등(1993)은 추가령곡의 자연 인문현상에 대한 지리적 현상을 군사적 활용 면에서 분석했다. 주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학문적 담론으로 간주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김형용(1995)은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징이 전쟁에 미친 영향을 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4계절이 뚜렷한 기상이 한반도의 군사적 방어 면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형용의 연구는 학술연구 문헌이었음에도 군사지리학의 범위를 군사작전적 활용 측면에 국한시킨 한계를 지녔다. 이한중(1999)은 군사지리학을 국력의 평가, 상황 판단을 위한 작전지역 분석, 군수지원 분야의 기준 설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내용전개는 대부분 Peltier and Percy (1966)의 『Military Geography』의 내용을 인용한 가운데 작전적 활용 측면에 머물렀다. 김만규 등(2010)은 군사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지리정보체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또한 김만규 등(2013)은 군사작전간의 변화무쌍한 제반 자연환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합성환경 모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지리정보체계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군사과학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다. 지상현 등(2014)은 전쟁의 공간 확산 분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협력세력의 구축에 있어서 단순한 지리적 분포의 원근보다는 국가 간 동맹관계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영미권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연구에서는 전쟁 기여 면의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역확장을 통

한 연구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었다. Palka(1995)는 군대의 평화유지와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군사지리학의 연구를 통해 군사지리학이 전쟁기여 위주에서 벗어나 보편적 학문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Johnson(1921)은 전세계의 주요 전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지정학적 요소가 국가전략, 군사력 구성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국토의 크기, 위치가 가지는 역할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Tieze(1993)는 군사지리학이 안보지리학임을 강조하면서 지정학 분야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Heffernan(1995)은 제1차 세계대전 간 지리, 지도학과 군사정보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리의 구비 면에서 지리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혔다. Woodward(2005)는 군사력 이미지 형성과 관련하여 향후 군대는 주변 사회와의 조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McColl(1993)은 지역정보 파악의 관점에서 전 세계에 걸친 피난민 발생지역의 경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선행연구 고찰결과 국내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200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군사기관과 군 관련 인원 위주로 전쟁기여 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2010년 이후 군 교육기관 대신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지리정보체계의 군사적 활용과 전쟁과 공간분포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향후 군사지리학 연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영미권의 연구에서 전쟁기여 면의 연구 외에 평화유지와 인도주의 그리고 군사력 보유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분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도 이러한 연구경향을 참고하여 군사지리학의 인식에 대한 영역확장과 연구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한국의 군사학 연구와 군사지리학

### 1) 한국의 군사학 연구 형성과 군사지리학

군사지리학은 군사학의 하위 학문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군사지리학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상위 학문인 군사학과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하다. 한국의 군사학 연구 과정은 육군교육사령부와 국방대 등을 포함하는 군 교육기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하대덕(1992, 21-22)은 한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학문으로서 군사학을 인식하는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80년에 국방대학원에서 실시한 “국방학술 세미나”를 기점으로 군사학의 이론과 교육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대학원(1985)에서는 Julian Lider(1983)의 『Military Theory』를 번역하여 교육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다수의 대학에서 군사학과를 설치하는 등 연구 및 교육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학과 군사지리학의 관계에 대해 군사학의 정의, 군사이론체계, 군사학 교과목 등 3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육군교육사령부(1986; 1987)의 정의에 따르면 “군사이론은 국가와 민족의 전쟁에 대한 인식 및 대처를 위한 공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범국민적 군사사상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한 범국민적인 군사사상의 형성은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왔다. 뒤에서 상세히 고찰하겠지만 한반도의 군사사상 형성은 초기에는 주로 중국대륙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영토와 인구 면에서 열세한 가운데 지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시대를 초월하여 형성된 공통적인 인식의 바탕에는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기상을 연계시키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즉 군사지리학 요소가 한반도의 전통적인 군사사상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육군교육사령부(1987)에 의하면 군사이론체계는 국가안보문제의 군사적 차원에 관한 지식체계이다. 즉 군사적 측면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전·평시 군사력의 건설, 관리, 지원 및 운용문제와 이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심리, 과학 등 다양한 국력 요소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항들을 과학적 기초 위에 체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군의 군사이론체계는 ‘용병체계’와 ‘관리지원체계’로 나누어진다. 용병분야는 군사력 운용과 전쟁철학으로 구성되며, 관리지원 분야에는 군사력 건설, 군사력 지원, 군수지원, 교육훈련, 무기 및 장비 구비, 인사, 체계관리 등을 포함한다. 한국군의 군사이론체

계에서 군사지리는 군사이론을 실제 적용할 대상으로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정성(2004, 62-68)에 의하면 군사지리학은 한국 군사학의 학문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를 통하여 전쟁과 군사력 연구 분야의 범주로 포함되었으며 군사과학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군사지리학을 용병분야 과목인 군사정보학의 세부 과목으로 분류했다. 최종철 등(2006, 22)도 미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학체계에서 군사지리를 군사학의 교과목으로 대부분 편성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의 군사지리학 교육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용선 등(1999)에 따르면 군사지리학은 전쟁 및 군사력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며, 그 영역에는 군사지리 및 기상을 포함한다. 군사지리학은 한국의 군사이론체계 형성에 있어서 지역과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교육이 필요한 과목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군사지리학의 다양한 연구범위의 확장에 비해 한국의 군사지리학 관련 영역은 지형과 기후, 그리고 지정학 분야에 치우친 상태이다. 군사지리학의 구체적인 교육범위는 군사지형학, 군사기상학, 지정학 등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이는 현재 각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지리학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군사학에서 군사지리학 영역은 대부분 지형과 기후에 관한 정보 분석을 다루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군사이론내 군사지리 교육과목 편성 현황

구분	군사지리학 포함 현황
분야	전쟁 및 군사력 연구
영역	군사지리 및 기상
학과목	군사지형학, 군사기상학, 군사지리 지정학

\* 출처: 장용선 등, 1999,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및 학위수여 방안연구, 화랑대연구소, 29.

## 2) 한국의 시대별 용병술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 (1) 한국의 지형 특성에 따른 시대별 용병술

이강언 등(2005, 288)에 따르면 “용병술이란 준비된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국가전략 개념 하에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활동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 작전술 및 전술전기를 망라한 이론과 실재를 포함한다. 손자병법(김광수 편역, 1999, 322-323)의 “부지형자, 병지조야, 료적제승, 계험액원근, 상장지도야(夫地形者, 兵之助也, 料敵制勝, 計險阨遠近, 上將之道也)”는 용병술과 지형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무릇 지형이란 용병에 도움을 주며 적을 헤아리고 판단하여 승리태세를 만들어 가며 지형이 험하고 좁고 멀고 가깝고를 계량하고 활용하는 것은 최고 장수의 용병술이다.” 라는 손자의 관점은 용병술 면에서 지형의 중요성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지형 인식 수준에서 벗어나 활용성을 고려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지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의 시대별 용병술 형성과 군사지리학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부합하는 용병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지형적 상태인 국토의 여건, 그리고 무기체계를 비롯한 가용 전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각 시대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용병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지리학 요소가 용병술 형성에 끼친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외부침략에 대응하여 수행된 각 시대별 용병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전 국토의 약 70%가 산악인 지형 여건상 조선시대까지는 전통적으로 주요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지형지물을 이용한 성을 많이 쌓아 군사기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을 중심으로 한 전투 수행이 많이 이루어졌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용병술과 군사지리학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국가는 고구려를 들 수 있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국가로서 중국대륙에도 국가 영토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였던 군사강국이였다. 육군본부(1975, 78)에 따르면 고구려는 청야입보(淸野立保)와 이일대로(以逸待勞)를 기본적인 전술로 활용하였다. 청야입보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형에 성을 구축한 다음 주변의 토지를 경작하다

가 유사시에는 농작물을 거두어 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일대로는 아군에 유리한 지점까지 적을 유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적의 병참선을 과도하게 신장시킴으로써 전투력이 감소된 적의 약점을 포착 시 즉각 공격에 나서는 전술이었다. 이는 한반도의 산악지형 특성을 활용하여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는 데 중점을 둔 용병술이다.

육군본부(1976, 79-80)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주요 전술로 구사하였던 견벽고수전술(堅壁固守戰術)과 인병출격전술(引兵出擊戰術)은 각각 고구려시대의 청야입보와 이일대로 전술개념을 이어받은 유사한 전술적 운용 방식이었다. 이는 한반도의 지형을 이용하는 용병술 개념 면에서 고려도 고구려시대와 동일한 인식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범구(1989, 125)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군사력 운용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성을 중심으로 한 거점중심방어체제(據點縱深防禦體制)와 선수후공(先守後攻) 전술을 구사하였다. 적이 침입할 경우에는 진관단위로 분포된 성을 이용한 청야입보, 이일대로 전술에 의해 축차적으로 적의 공격 기세를 약화시켰다. 그리고 일단 적의 약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반격전을 감행하여 격멸하는 선수후공(先守後攻)의 방어전술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 야욕이 본격화된 20세기 초에 한반도에서는 의병 봉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 이종학(2010, 481-489)에 의하면 열세한 병력으로 압도적인 규모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상태에서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은 의병들에게 현대의 유격전과 같은 개념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한 자연발생적인 또 하나의 전투력으로 인식되어졌다. 결국 당시의 유격전은 군사지리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산악지형을 활용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약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치러진 현대식 전쟁이라는 점에서 군사지리학적 연구를 위한 비중이 매우 높다. 육군사관학교(1987, 254-334)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피아간의 전술·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또한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을 대표하는 산악과 하천이었다. 산악과 하천으로 구성된 험준한 지형은 피·아 모두의 진출 간 공격기세 유

지와 병참선 확보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야기했다. 이종학(2010, 53-539)에 의하면 당시 진출로 상에 있던 하천을 도하하는데 필요한 도하 장비의 부족과 진출선 확대에 인한 신장된 보급거리 극복 문제 등은 낙동강 작전 시 북괴군의 진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는 중공군이 초기의 우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위 37도선 이남까지 진출하기 어렵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당시 한국군의 입장에서 미약한 전투장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도착시간을 벌 수 있는 지연전(遲延戰)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산악과 하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결과였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은 4계절이 변하는 기상과 결합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에게 전술상의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반면에 방자(防者)의 입장에 있는 한반도의 국가는 이러한 지형을 이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외부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한반도의 용병술은 각 시대별로 한반도에 위치했던 국가의 생존을 위해 지형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별 용병술 현황은 <표 2>와 같이 정리되어진다.

(2) 용병술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한반도의 용병술이 형성되어 온 과정은 고려시대까지는 전투현장에서 전투부대 단위의 전투방법을 구체화한 전술적 수준이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한반도의 용병술 형성의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주로 개별 전장에서 부대의 전술적

운용에 중점을 둔 용병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군사지리학 요소의 중요성은 지형과 기후 등 지역적 전투를 효율적으로 치르는데 필요한 분야에 두어졌다. 육군대학(1989, 217)에 따르면 전술은 전투행위를 위주로 하여 적의 전투력을 격멸함으로써 작전술에서 부여한 목표를 달성하는 용병술을 일컫는 것이다. 전술적 측면의 고려에는 군사지리학 요소인 지형 및 기상 등이 주요 고려요소로 포함된다. 지형 및 기상 등은 주로 부대의 기동과 공격방향 등을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전투부대 단위에서 중시해야 한다.

고려시대까지의 전술적 수준의 용병술 형성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정립한 선수후공 개념은 지역 단위로 적용 가능한 전술적 수준의 용병술인 동시에 전군적인 용병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적 전장에서 전투 수행 방식은 이제까지의 개념을 적용하되, 국가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지형 특징을 활용하여 아군의 전투력은 보존하면서 전쟁 초기에 적의 전투력을 최대한 소모시킨 후 격멸하는 전략적 수준의 용병술을 필요로 했다. 이는 근대에 들어 광활한 국토를 가진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의 침략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구사한 전략과 유사한 것이다. 고려시대까지는 주적을 중국대륙으로 한정된 가운데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했다. 남방의 소규모 왜구는 국가 방어 전략차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주변 국가와의 군사적 관계는 통일국가를 수립한 일본이 국가차원의 공격을 해음으로서 조선은 북방과 남방의 적을 동시

표 2. 한반도의 시대별 용병술에서 나타나는 지리와 군사전략과의 관계

시 대	주 요 용 병 술
고구려 (삼국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야입보: 유사시에 주변의 농작물을 거두어 성에 들어가 방어</li> <li>· 이일대로: 방어진지에서 휴식과 훈련을 하면서 전투력을 보강하다가 적의 약점을 포착했을 시 즉각 이를 공격</li> </ul>
고 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벽고수전술: 주진의 성이 그 지역 군·관·민의 생활 근거지 및 군사적 방어진지 역할 수행</li> <li>· 인병출격전술: 적의 포위망에 취약점이 발견되면 출격하여 이를 격파</li> </ul>
조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중심방어체제: 진관단위로 분포된 성을 이용한 청야입보, 이일대로 전술에 의해 축차적으로 적의 공격기세를 약화시킴</li> <li>· 선수후공: 적의 약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반격전을 감행하여 격멸</li> </ul>
근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격전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병력으로 정규군에게 타격을 가하는 전술</li> <li>· 지연전: 지형 등 제반 여건을 활용하여 적의 공격기세를 늦추어 반격여건을 도모하는 작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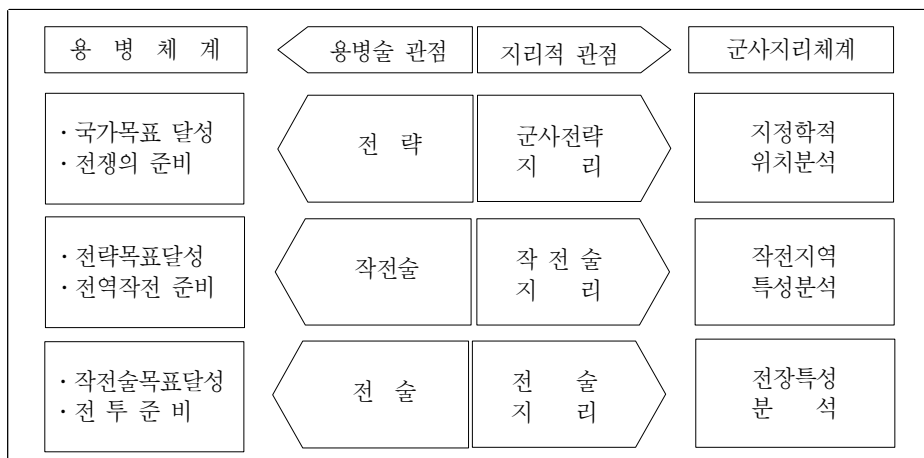
에 고려해야 하는 국가전략 차원의 용병술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전략적 용병술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군사지리학 요소는 지형과 기후 등 기본적인 요소 외에 한반도와 일본 및 중국과의 거리, 위치, 정치적 상황 등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를 필요로 했다. 원익환 등(1980, 366-371)에 따르면 군사전략의 구상과 실시를 위해서는 통상 지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제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고려에 필요한 군사지리 요소에는 통상적인 지리 정보 요소인 지형과 기상의 범주를 상회하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영식 등(1976, 21-23)은 국가위치, 핵심지역, 국경선, 거리, 지형, 기상·기후, 자원산업인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즉 전략적 차원에서는 국가위치, 핵심지역, 국경선, 거리, 자원, 산업인구 등 지정학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군사지리학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 차원의 용병술인 선수후공 개념 형성에 군사지리학 측면의 지정학적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유격전술과 지연전 등의 개념은 전술적 수준보다는 상위의 전반적인 부대의 작전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작전술적 개념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격전술과 지연전은 좁은 전투지역 단위 보다는 규모가 더 큰 전장지역에서 비교적 다수의 부대가 지역별 특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작

전술 차원의 용병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현대식 군대가 작전사급 단위로 용병술을 구사하는 특징과 궤를 같이한다. 육군대학(1989, 195)에 의하면 작전술은 싸우는 방법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의 구상 및 실천에 지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필요한 지리적 요소로는 가용부대의 배치 및 기동, 무기체계 운용, 보급원에 영향을 주는 전장전체의 공간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용병술은 전략적 관점에서는 적에 비해 열세한 병력의 규모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과 지형적 특징을 결합시켜 활용한 선수후공의 전략이, 작전술적 관점에서는 지연전과 유격전의 개념을, 전술적 관점에서는 인병출격전술(이일대로)과 견벽고수전술(청야입보) 등이 정립 및 활용되어졌다. 이러한 용병술 개념은 모두 한반도의 군사지리학 요소가 주는 전장 특징을 고려하여 형성되었다.

교육사(1987, 63)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적 용병술의 전개과정을 배경으로 한국에서는 용병체계와 군사관리 지원체계 면에서 군사이론을 실제 적용할 대상으로서 군사지리학을 인식했다. 이와 함께 군사지리학을 일반적인 군의 용병체계에 속하는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에 부합하도록 군사전략지리, 작전술지리, 전술지리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은 영미권의 인식과 동일한 관점이다. 용병술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군사지리분야와의 관계는



\* 출처 : 육군대학, 1988a, 군사지리, p.9 그림 수정

그림 1. 용병술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작전적 요소와 지리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를 육군대학(1988a)은 <그림 1>과 같이 표현했다.

### 3. 연구 및 교육 현황과 특성

#### 1) 한국 군사지리학의 학문적 위치에 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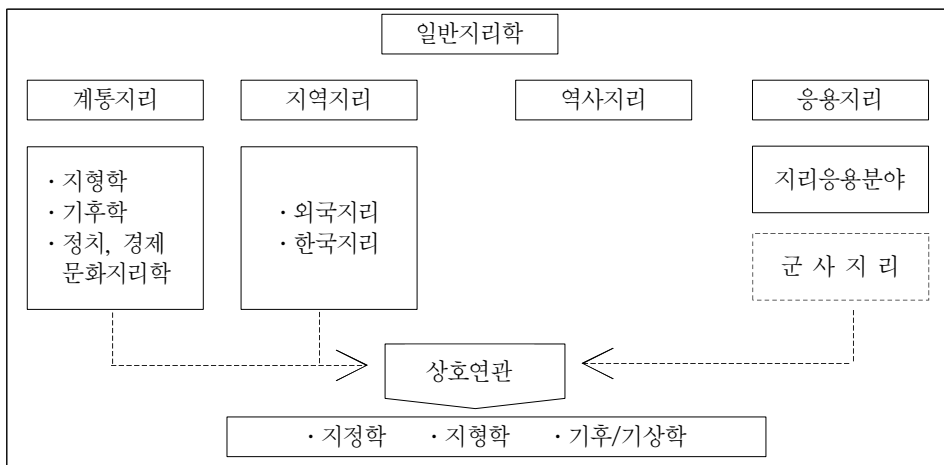
군사지리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80년대에 제기된 연구활동에서 식별되고 있으며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의 한 분야인 경제지리와 공통점이 많다고 하였다. 육군대학(1988b, 7)에 의하면 군사지리학의 위치는 계통지리, 지역지리, 응용지리 등으로 구성된 일반지리학에서 응용지리학에 속한다. 육군대학(1989, 27-28)에 따르면 군사지리학은 응용지리학의 한분야인 가운데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 그리고 응용지리학의 내용이 상호 연관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사지리학의 주요 구성분야를 지정학, 지형학, 기후학으로 구분하였다. 학술적 연구문헌인 김형용(1995, 7)의 연구에서도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공통적으로 ‘군사지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지리학의 학문적 위치에 대해 대부분 응용지리학적 관점에서 동일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군사지리학을 공식적으로 응용지리학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영미권의 군사지리학자들에 의해서이며 이러한 인식을 한국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림 2>는 이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 군사지리학의 학문체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군사지리(국방대학원 편역, 1988)』에서 분류한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군사지리학 연구자들이 영미권의 군사지리학 연구내용을 번역 및 활용하는 수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독창적인 군사지리학 관점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에 관한 내용은 식별되지 않는다. 대부분 영미권의 전통적인 관점과 동일한 시각에서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의 한 분야로 보았다.

한국의 지리학 연구 활동에서 군사지리학 학문체계와 관련한 담론은 식별이 어렵다. 군사지리학의 학문체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군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기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학술자료는 군교육기관의 인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활동이 군 교육기관 위주로 진행되면서 학계의 의견이 결여된 연구 활동면의 편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리학의 학문 범주에서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분류한 것은 군대 조직이 산업 조직과 마찬가지로



\* 출처 : 육군대학, 1989, 군사지리, p.28 그림

그림 2. 지리학 체계상의 군사지리학



지리정보와 지리과학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Palka et al.(2005, 394-397)도 이러한 인식의 출발이 군사적 활용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현대의 관련 연구들에서 지리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존의 군사적 응용목적이 전쟁기여에 관한 것이 일반적이었던 사실에 비해 현대의 관점은 팔카(Palka, 1995)와 우드워드(Woodward, 2005)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평화와 인도주의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현대의 군사지리학이 응용지리학이라는 분류면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거와 달리 인본주의와 평화유지에 더욱 많은 연구를 하는 학문 본래의 속성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도 이러한 현대의 군사지리학에 대한 인식과 연구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응용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일반 학문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학문적 발전이 학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그동안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군의 업무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과 연계하여 한정된 시기에 군 교육기관에 의해 그 역할이 수행되어 왔으며, 학문적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미흡한 연구수행 양상을 보여주었다.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미권의 연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리학계의 관련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2) 연구현황과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와 관

련된 활동은 대부분 군사교육 담당 및 관련 기관 주도로 수행되어져온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 활동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군사교육기관의 군사지리학과 관련된 교육은 대부분 작전임무 수행능력 배양에 필요한 지형 해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군교육기관의 교육용 참고서지와 일부 제한된 활동 연구 등이 식별되고 있다. 한국 군사(교육)기관의 군사지리 교육 관련 참고서지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군사지리학 관련 서지 발간이 활발했던 시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있다. 전반적인 군사지리의 정의, 군사지리 이론체계, 용병체계와의 관계 등은 전술한 Peltier and Percy의 『Military Geography』에서 인용하였다. 당시 한국 육군에서 용병술에 대한 능력 배양이 중시됨에 따라 군사이론 교육의 한 부분으로 군사지리학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내 연구가 없는 가운데 영미권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사교육 분야에서 지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제반 군사작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수준의 군사지리학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군사지리학 연구 활동은 <표 4>와 같다. 대부분 군 교육기관의 관련 인원에 의해 비공식 연구 활동이 수행되었다. 공식 학술활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나 2010년 이후에 군사지리학 기술의 접목과 관련된 연구 활동이 일부 식별되고 있다. 이는 한

표 3. 군사교육기관 참고서지 현황

구 분	발행기관	발행연도
군사지리(교육용 교안)	육군대학	1965
군사지리(군사전략기획과정 교재)	국방대학원	1978a
군사지리(군사전략기획과정 참고서지)	국방대학원	1978b
전략정보(군사지리정보 교범)	육군본부	1987
군사이론연구(용병체계중심)-군사발전지 44호 부록	육군교육사령부	1987
군사지리(순회교육 교재)	육군대학	1988a
군사지리(군사평론 276호 부록)	육군대학	1989

표 4. 한국 군사지리학 관련 연구문헌

구 분	연구자(기관)	연구연도
군사지리(교육사령부 연구문)	현대우	1991
지정학과 군사전략(한반도를 중심으로)	김형남	1991
서울-철원간 추가령곡의 지리적 분석	김두일 등	1993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성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김형용	1995
안전보장이론(21장 : 군사지리)	이한중	1999
분포형 합성환경자료의 군사시물레이션 적용	김만규 등	2010
SEDRIS 합성환경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변환기 개발	김만규 등	2013
The Spatial Diffusion of War: The Case of World War I	지상현 등	2014

국의 군사지리학 연구가 대부분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식되어 왔으며, 지리학의 하위 학문이라는 인식에 의한 연구관심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국 군사지리학 연구에 관한 시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60~1970년대는 Peltier and Percy의 연구 개념을 적용하여 군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군사지리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다. 1980년대는 육군대학에서 기준에 정립된 군사지리학의 개념을 군 업무수행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 시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는 군 교육기관 인원에 의한 군사지리학에 관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로 한반도의 역사 및 지정학, 그리고 지형적 특성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실시되었다. 2000~2010년 기간은 군사지리학에 대한 군 및 학계의 관심이 저조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에 지리과학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일부 지리학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한국 군사지리학 연구의 전개과정에서 ‘군사지리학’ 대신 ‘군사지리’ 용어가 일반화 되어 있는 점도 군교육기관의 주도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65년에 육군대학에서 교육용 교재로 작성한 교안의 이름에서 ‘군사지리’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군사지리는 ‘지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군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군사적인 중요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후 국방대에서 Peltier and Percy의 『Military Geography』를 번역하면서 동일하게 ‘군

사지리’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3>과 <표 4>에서 나타나듯이 군 관련기관에서는 모두 ‘군사지리’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즉 ‘군사지리’ 용어는 학문적 연구가 아닌 군 관련 기관 및 인원에 의해 군사적 목적의 활용 대상으로 이 분야를 인식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경향은 전쟁기여에 중점을 둔 영미권의 전통적인 군사지리학 연구 경향을 많이 따랐으며, 그동안 발간된 연구문헌들의 내용도 모두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지속적으로 맥을 잇지 못한 가운데 군 교육기관 위주로 군사적 활용 목적에 치우친 군사적 활용범주에 머물렀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한국도 적정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 확립과 향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평화유지 활동 참여 목적 면에서 군사지리학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 3) 교육 현황과 특성

한국의 군사지리학 교육과 관련된 현황에 대한 고찰은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적 양상을 예측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련 자료와 직접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한국 군사지리학 교육의 주요 역할 수행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일반대학 군사학과(부)와 육사 및 3사관학교에서 군사지리학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국방대, 합동대, 교육사 및 예하 병과별 군사학교들에 의한 군사지리학 관련 교육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군 연구

표 5. 군사지리학 교육현황

구 분	교육과정	과목명	비 고
육사	· 필수 과목	· 군사지리/기상	평균 2~3학점 수준으로 정상적 학문교육 수준 유지
3사	· 필수 과목	· 군사지리/기상	
군사학과(부) (일반대학)	· 전체 군사학과(부)의 75%가 교육과목 선정 · 필수 과목	· 군사지리학	교육내용(예) · A대학: 콜린스 저서(군사지리) · B대학: 콜린스 저서(군사지리), 독도법, 기상 · C대학: 독도법, 전장정보분석, 지형, 기상 · D대학: 지형분석 · E대학: 지정학, 지형, 기상

기관의 교육내용은 대부분 군사적 업무수행 능력 배양 측면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학교별 군사지리학 교육내용은 <표 5>와 같다.

일반대학의 군사학과(부)와 육·3사관학교의 교육은 군사지리학의 학문적 지식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기초학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사학과(부)는 2003년을 기점으로 관련 교육과정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사학과(부)에서 군사지리학 또는 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대학 군사학과(부)의 경우 대부분 단편적인 지형, 기상, 독도법 등 기초 분야에 대한 지식 전수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육사와 3사관학교의 군사지리학 교육과목을 모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학점을 이수토록 체계화되어 있으며 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군사지리 및 기상과목을 편성하여 기상과 지형 및 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일반지리학 내용을 기초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영미권에서 수행되어온 연구내용을 통해서 볼 때 군사지리학 교육을 통해서 군에서 활용성 증대가 가능한 분야는 지리과학기술의 활용 능력, 입체적인 지형정보 판단 그리고 한반도의 지리적 요인과 무기체계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 지식 배양 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군사지리학 교육이 체계적인 교육수준 면에서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군 연구기관에 의해서 주도되어온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내용은 일부 기술적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고 모두 전쟁기여 면의 인식에 필요한 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대학의 지리학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은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지리학과는 대부분 계통지리학, 지역지리학 환경지리학, 지리정보시스템, 그리고 응용지리학 등의 범주에서 교육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지리교육과는 지리학과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지리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지리학 관련 교육의 범주에 ‘군사지리학’ 과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군사지리학을 군사학의 한 범주로 인식하였거나 베트남전 이후 대두된 반전 의식의 여파로 영미권에서 군사지리학을 포함하는 군사학 연구 전반에 대해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한국의 지리학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Palka(1995)와 Woodward(200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권의 군사지리학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영역확대 노력의 전개와 함께 군사지리학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군사지리학이 응용지리학의 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각 대학에서 응용지리학을 주요 교육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사실은 군사지리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군사지리학이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미권의 경우와 같이 일반 대학에서 지리학 교육 범위 내의 응용지리학 관점에서 군사지리학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 4. 한국 군사지리학의 연구 및 교육 발전방향

##### 1) 발전개념

앞에서 살펴본 한국 군사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교육현황 및 그 특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군사지리학의 연구와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는 학문연구의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지리학이 군사이론과 용병술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의 수립과 전문성 있는 강의 여건의 확보가 선결 요건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요소부터 구비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방향성 있는 교육과정 수립과 우수한 연구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지리학계, 그리고 군내 군사지리학 관련 정책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 2) 실천방안

본 연구에서는 상기 발전개념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군사지리학 교육에 필요한 커리큘럼의 수립, 군사지리학 교육기관과 지리학계 및 관련 군 정책기관간의 교류협의회의 구성, 그리고 관련 지리학회 차원의 군사지리학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군사지리학 커리큘럼의 수립은 <표 6>과 같이 당면과제와 중장기 발전분야로 구분하였다. 당면 과제로 제시한 4개 분야는 현행 주요 군사이론의 형성과 용병술과 관련된 분야로 한국군의 군

사력 운용에 필요한 분야의 식별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군사지리학의 연구와 교육수요가 군의 업무수행 필요성과 부합할 때 지속적인 연구수요 제공 측면에서 안정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제시한 과제의 중요성은 관련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분야이다. 자연지리 요소와 전략, 전술, 교리수립의 관계에 대한 분야에서는 전투수행간의 자연지리 요소의 작전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Johnson(1921, xi-xxi)은 전 세계의 주요 전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정학적 요소가 국가전략, 군사력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토의 크기, 위치가 가지는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군사이론과 군사지리학의 관계에서는 군사지리학이 군사이론의 적용대상으로서 용병술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Tieze(1993, 215-219)는 군사지리학은 안보지리학임을 강조하면서 지정학 분야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Heffernan(1995, 504-533)은 제1차 세계대전 간 지리, 지도학과 군사정보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사교리의 구비 면에서 지리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혔다. 군사시설 입지선정과 위게임 등 모의분석 체계 분야에서는 합성전장환경과 지리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 발전분야로 제시한 교육내용의 확장 요소는 3분야로 제시하였다. 중장기 분야 또한 관련 연구를 통하여 그 중요성이 입증된 사례에 한하여 우선 제시하였다. Woodward(2005, 951-953)에 의하면 향후 군대의 이미지 형성 관련 분야는 주변 사회와의 조화가 중시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주둔 및 토지

표 6. 주요 커리큘럼 제시(안)

구 분	주요 내용
당면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지리 요소와 전략, 전술, 교리수립의 관계</li> <li>· 지정학적 요소에 의한 국가전략, 군사력 구성의 관계</li> <li>· 군사이론과 군사지리학의 관계</li> <li>· 군사시설 입지선정과 위게임 등 모의분석 체계에 합성전장환경과 지리정보의 활용</li> </ul>
중장기 발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력 보유 이미지 형성 분야</li> <li>· 평화유지 활동 영영</li> <li>· 군사지리 기술 활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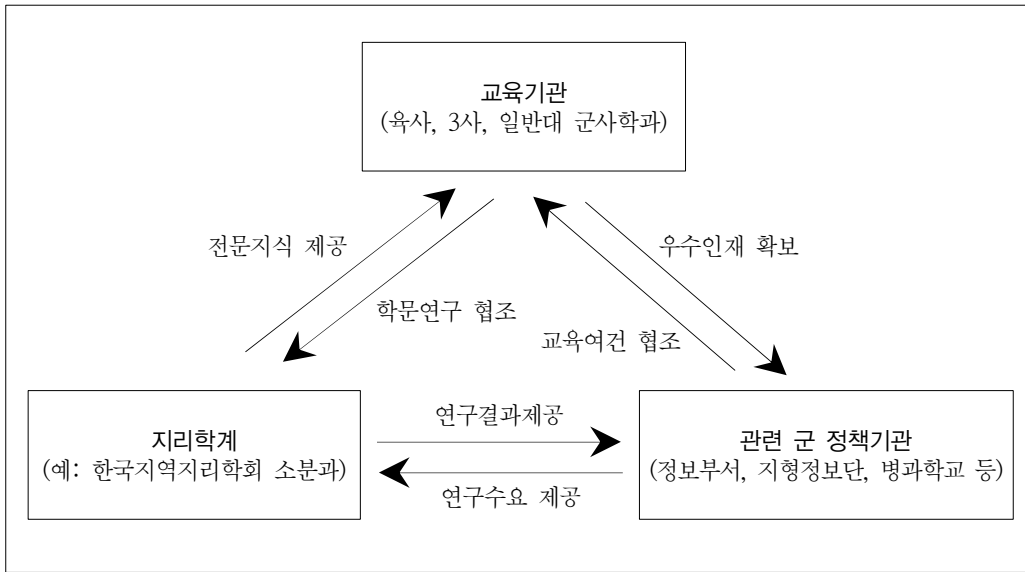


그림 3. 교류협의회 기관별 역할

사용정책이 주변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중심의 지리학적 사고가 선행된 군사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군은 세계평화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국력의 신장과 함께 우리 군의 평화유지 참여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평화유지 임무수행에 필요한 파병지역의 지리적 정보는 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작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정보 파악의 관점에서 McColl (1993, 169-177)은 전 세계에 걸친 피난민 발생지역의 분포 경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현대전 수행에 있어서 지리적 기술의 작전적 활용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한 교육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방안은 <그림 3>과 같이 교육기관과 지리학계, 그리고 관련 군 정책기관간의 교류협의회 구성이 필요한데 대한 것이다. 군내 군사지리학 관련 정책기관은 군사이론과 관련된 연구수요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지리학계의 연구 분위기 확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군 교육기관과 일반대학의 군사학과와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교육 여건 확보 면에

대한 기여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지리학계는 활용성이 높은 연구결과의 산출과 교육기관에 대한 전문지식 및 우수한 강사진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양질의 교육실시를 통한 학문연구 수준의 향상과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건 구비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제시하는 발전 방안은 지리학계 내에 군사지리학분야를 담당하는 소분과의 신설에 관한 것이다. 이동욱(편역, 1998, 7)에 의하면 미국지리학회(AAG: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의 경우 이미 1996년부터 군사지리학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지리학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리학계 내에 군사지리학에 대한 학문연구와 우수한 교수진 양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분과의 설치를 통하여 군사지리학의 연구수준과 저변을 넓히는 학회 차원의 기여가 가능하다.

## 5. 요약 및 결론

군사지리학은 지리적인 요소를 군사적 행위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에는 군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군부대와 제반 사물의 위치, 특성 및 분

포가 가지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군사지리학은 군대의 작전 및 용병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군사지리학은 군사이론의 확립에 있어서 군사력의 설계 및 운용과 관련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군 교육기관과 관련 인원의 주도로 업무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1970~1990년대에 주로 실시되었다. 대체로 전쟁기여 면을 중시하는 영미권의 전통적 인식과 흐름을 같이해왔다. 따라서 군사지리학은 응용지리학이라는 관점을 유지한 가운데 군사이론 체계와 용병술에 관련된 분야로 한국의 군사학 연구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군사학의 필수 교육과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시대별 용병술은 군사지리학의 주요 요소인 지형과 기후 및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가운데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한국군의 군사이론체계에서는 군사지리학을 군사이론의 실제 적용대상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전쟁수행 제대별로 효율적 적용 면에서 군사전략지리, 작전술지리, 전술지리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폭력사용의 이미지가 전제되는 전쟁에 기여하는 학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의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광범위한 연구 침체현상은 한국 지리학계의 군사지리학 관련 담론의 결여와 1990년대 이후 연구 활동이 저조한 현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의 전반적인 군사지리학 교육과 관련하여 보완할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군사지리학의 교육발전을 위한 커리큘럼을 당면과제와 중장기 발전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당면 과제로 제시한 4개 분야는 현행 주요 군사이론의 형성과 용병술과 관련된 한국군의 군사력 운용에 필요한 분야로서 Johnson(1921), Tieze(1993), 그리고 Heffernan(1995) 등 서구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주요 내용은 1) 자연지리 요소와 전략, 전술, 교리수립의 관계, 2) 지정학적 요소에 의한 국가전략, 군사력 구성의 관계, 3) 군사이론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4) 군사시설 입지선정과 위게임 및 군사 모의분석(simulation & analysis) 체계에 합성전장환경 지리정보의 활용 등 4개 분

야이다. 또한 한국 군사지리학의 외연 확장을 위한 연구영역 확대 면의 중장기 발전 분야로는 1) 군사력 보유 이미지 형성, 2) 평화유지 활동 영역, 3) 군사지리 기술 활용 등 3가지의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들 분야 또한 Woodward(2005)와 McColl(1993), Palka(1995) 등의 연구를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 개선 과제와 함께 군사지리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메커니즘(mechanism)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지리학회 내의 군사지리학 관련 소분과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방안의 실천을 통하여 군사지리학 연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우수한 교육의 실시를 통한 인재 획득으로 군과 학문의 발전이 동시에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

## 사사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UD140022PD).

## 문헌

- 국방대학원, 1978a, 군사지리, 군사전략기획과정 교재.
- 국방대학원, 1978b, 군사지리, 군사전략기획과정 참고서지.
- 국방대학원(편역), 1985, 軍事理論, 325-326 (Julian, 1983, *Military Theory*,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Gower Pub. Co. Lt., England).
- 국방대학원(편역), 1988, 군사지리, 국방대학원, 18-27(Louis C. Peltier & G. Etzel Percy, 1966, *Military Geography*, D. Van Nostrand Company, Inc. Princeton, New Jersey).
- 권영식·김성희·원익환·한옥·이형호·유우익, 1976, 국방지리(5판), 박영사, 21-23.
- 김광수(편역), 1999, 손자병법, 책세상, 서울, 381-403 (손자, B.C.6세기, 孫子兵法).
- 김두일·이형호·한옥·김항덕, 1993, 서울-철원간 추가령곡의 지리적 분석, 화랑대연구소 연구논문, 56-80.

- 김만규·조내현·박종철, 2010, 분포형 합성환경자료의 군사시물레이션 적용, 한국시물레이션학회 논문지, 19(4), 235-247.
- 김만규·강윤아·김형기·한순홍, 2013, SEDRIS 합성 환경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변환기 개발, 한국 CAD/CAM학회 논문집, 18(3), 189-199.
- 김형용, 1995,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성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36.
- 김형남, 1991, 지정학과 군사전략(한반도를 중심으로), 국방참모대 연구문, 5-7.
- 원익환·권영식·박병권·이형호·유재신·한욱, 1980, 군사지리(한국 및 주변국), 박영사, 333-414.
- 육군교육사령부, 1986, 軍事思想史入門,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교육사령부, 1987, 군사이론연구(용병체계 중심), 군사발전지 부록 제44호, 육군인쇄창, 60-63.
- 육군대학, 1965, 군사지리, 교안.
- 육군대학, 1988a, 군사지리, 육군대학 순회교육 교재.
- 육군대학, 1988b, 군사평론275, 육군대학, 191-196.
- 육군대학, 1989, 군사지리(군사평론 276호부록), 육군대학, 18-21.
- 육군본부, 1975, 한국고전사1(고대편), 육군본부, 78.
- 육군본부, 1976, 고전사2(중세편), 육군본부, 79-80.
- 육군본부, 1987, 전략정보(군사지리정보), 교범.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1987, 한국전쟁사, 日新社(倫), 서울, 254-334.
- 이강연·강석훈·김정기·오윤숙·전태일, 2005, 최신 군사용어 사전, 양서각, 288.
- 이동욱(편역), 2009, 직업군인과 일반인을 위한 군사지리, 경남대 출판부(John M. Collins, 1998, *Military Geography for Professional and Public*, Potomac Books, Inc., Washington, D.C.).
- 이범구, 1989, 한국의 무기체계 발달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5.
- 이종학, 1997, 군사이론과 군사교육의 연구, 서라벌연구소, 291-293.
- 이종학, 2010, 한국군사사 연구,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481-539.
- 이한중, 1999, 안전보장 이론(21장 군사지리), 국방대학원 연구문, 481-490.
- 장용선·김동식·박노홍·김광수·최영윤·이철웅·김용주, 1999,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및 학위수여 방안 연구, 화랑대연구소, 28-29.
- 정 성, 2004, 국내·외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 국방대학교 연구문, 62-68.
- 지상현, Colin Flint and Paul Diehl and John Vasquez and Jurgen Scheffran and Steven M. Radil and Toby J. Rider, 2014, The Spatial Diffusion of War: The Case of World War I, 대한지리학회지, 49(1), 57-76.
- 최종철·이필중·박영준·홍성표·김태준, 2006, 세계 군사학 교육 및 연구동향, 국방대학교 교육학술연구과제, 1-88.
- 하대덕, 1992, 한국의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방향, 국방대학원 '92안보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20-21.
- 현대우, 1991, 군사지리, 교육사 연구문, 2-5.
- Douglas Wilson Johnson, 1921, *Battlefield of the World War*,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Research Series 3,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xi-xxi.
- Eugene J. Palka, 1995, The US Army in Operations other than War: A Time to Revive Military Geography, *GeoJournal* 37(2), 201-208.
- Eugene J. Palka and Francis A. Galgano and Mark W. corson, 2005, Operation Iraqi Freedom: A military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Geographical Review*, 95(3), 373-399.
- McColl, Robert W., 1993, The Creation and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Refugees: Politics, Military and Geography, *GeoJournal*, 31(2), 169-177.
- Michael Heffernan, 1996, Geography, cartography and military intelligence: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the First World War,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1(3), 504-533.
- Rachel Woodward, 2005, From Military Geography to Militarism's Geographies: Disciplinary engagements with the Geographies of militarism and military activit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6), 718-740.
- Wolf Tietze, 1993, Military Geography-Wehrgeographie-Geography of Security, *GeoJournal*,

31(2), 215-219.

- 교신 : 황성한, 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56(인사대) 지리학과, 이메일 : jmy6397@naver.com, 전화 : 010-5072-2367

Correspondence : Sung Han Hwang, 314-701, Dep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 Daehakro, Gongju, Chungnam, Korea, E-mail : jmy6397@naver.com, tel : 010-5072-2367

(접수: 2014.12.28, 수정: 2015.02.06, 채택: 2015.02.16)